

'양성평등 특별 전복' 지원체계 구축 속도

전북여성가족재단, 포용적 가족 지원·지속가능한 여성 일자리 창출 등 여성·가족 정책 추진 방향 발표

전북여성가족재단(원장 허명숙, 이하 재단)은 가족 형태 변화와 노동환경 전환에 대응해 포용적 가족지원과 지속가능한 여성 일자리 창출을 핵심으로 한 전복형 여성·가족 정책 추진 방향을 밝혔다.

재단은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와 가족의 안정적 삶을 지원하는 여성·가족 정책의 핵심 수행기관으로서, 교육·일자리·가족서비스·정책연구를 연계한 통합적 지원체계 구축에 속도를 내고 있다.

먼저, 저출생·비혼·1인 가구 증가 등 가족의 다변화 흐름을 사업에 반영해 생애주기별·가구유형별 맞춤형 사업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주요 사업으로는 결혼전국 부부캠프(3~11월), 자립지원청년교육(4~10월), 다함께 상글(Single)클럽(3~9월) 등이 있다.

또한 상담-훈련-취업-사후관리로 이어지는 A to Z 원스톱 일자리 서비스를 통해 단순한 취업을 넘어 '지속 가능한 고용 유지'를 핵심 목표로 다양한 여성일자리 사업을 추진하고 있

다.

올해는 산업체 수요를 반영한 직업교육훈련 이후 취업연계, 기업 적응지원, 경력유지 컨설팅까지 취업 전 주기 지원체계를 고도화해 여성의 경력단절 예방과 지역 산업의 인력 안정성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더불어, 일·생활균형 문화의 도내 확산을 위해 기업을 대상으로 정책활용 컨설팅, 가족친화 인증 준비 지원, 선도기업 협약 등을 추진한다.

도민을 대상으로는 워라벨 가족학교, 일·생활균형 주간 캠페인, 워라벨경진대회 등을 운영해 맞춤형 문화확산과 근로환경 개선을 도모할 예정이다.

한편, 여성정책연구소는 전복형 성평등 비전 수립을 목표로 보육·가족변화·여성사·노동 등을 주제로 하는 기본과제 4건과 디지털 성폭력, 일·생활균형, 성인지통계 등을 주제로 한 정책과제 4건의 연구를 수행한다.

연구성과는 성평등 포럼, 정책브리프, 성인지

통계 정기 발간 등을 통해 정책과 현장에 환류하고, 젠더정책 거버넌스를 기반으로 지역·전국 단위 협력을 확대해 연구소의 경쟁력을 강화할 계획이다.

전북성별영향평가센터와 전북거점형양성평등센터는 성별영향평가 이행점검, 컨설팅트 역량 강화, 정책개선 사례 확산 등을 통해 성주류화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고, 지자체·기관과의 협 및 네트워크를 통해 정책개선 성과의 지속적 확산을 도모한다.

아울러, 전북특별자치도 가족센터는 14개 시·군 가족센터의 광역 거점으로서 다문화 가족 지원, 통·이로 번역, 가족교류 프로그램, 지역사회 연계 강화를 통해 다양한 가족을 포괄하는 통합서비스를 제공하고 보편적 가족복지 기반을 공고히 할 계획이다.

허명숙 원장은 "2026년에는 정책의 실행력과 현장 체감도를 한층 끌어올려 여성과 가족의 일상에 실질적인 변화를 만드는 데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이만호 기자

"완주문화원 정상화가 최우선"

완주군, 원장 직무대행·이전 문제 등 해결 중

완주군이 장기간 이어져 온 완주문화원 사태와 관련해, 향후 문화원 정상화를 최우선 과제로 삼아 원장 직무대행과 이전 문제 등을 논의하고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9일 완주군 관계자는 "먼저 완주문화원 이전과 관련된 갈등이 장기화되면서 군민 여러분께 큰 심려를 끼쳐드린 점에 대해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며, "그간 법과 원칙에 따른 행정 집행 과정에서 발생한 불협화음이 지역 공동체에 미친 영향을 엄중히 인식하고 이를 조속히 해결하기 위해 모든 노력을 기울이겠다"

고 강조했다.

군에 따르면 현재 완주문화원이 현 원장 직무 정지, 정관을 위배한 이사회 소집 등 여러 운영상 의혹과 파행으로 인해 군민들의 신뢰를 잃은 상태로 문화원 내부에서도 자성론과 함께 신임 원장 선출을 앞당겨야 한다는 의견이 대두되고 있지만, 최근 직무대행 체제하에 문화원 정상화를 위해 군과 원민회 협의 중으로 법과 원칙의 틀 안에서 충분한 논의를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완주문화재단을 비롯한 4개 단체가

이전을 완료해 협업 성과를 내고 있으며 완주문화원 역시 진정성 있는 대화의 장을 마련하겠다는 게 완주군의 입장이다.

완주군 관계자는 "이전 문제 등은 일반적으로 추진하지 않을 것이고 문화원의 정상화가 먼저"라며, "고산면 구 문화원의 활용 방안을 포함한 모든 현안을 조화롭게 해결해 문화원이 13개 읍면 전체를 아우르는 진정한 문화적 거점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정상화에 최선을 다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강제집행과 관련해, "행정청이 실시하는 행정대집행이 아닌, 법원이 인용한 '병도단행 가처분 결정'에 따른 집행관이 수행하는 법정 절차로, 지난 강제집행시 문화원장과 법원집행관, 완주군청이 집행연기 이후 이의제기 없이 기로 확약한 바 있다"고 밝혔다.

/완주=염재복 기자

제725회 지평선아카데미, 술 인문학자 명옥 교수 초청 강연

12일 '술로 보는 숨겨진 한국사' 주제

김제시는 오는 12일 제725회 지평선아카데미에 대한민국 대표 술 인문학자인 명옥 교수를 초청해 '술로 보는 숨겨진 한국사'라는 주제로 강연을 진행한다.

명옥 교수는 일본 릿쿄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한 뒤 사회학적 관점에서 전통주와 주류 문화 연구에 매진하여 숙명여대 미식최고위 과정 주임교수, 동아일보 칼럼니스트, 농식품부 전통주 갤러리 부관장 등 다방면으로 활동하

고 있다.

또한 「술기로운 세계사」, 「말술남녀」, 「짧은 베르트의 술품」, 등 술을 매개로 역사와 문화를 풀어내는 독창적인 책을 저술했으며, tvN 「어쩌다 어른」, EBS 「비즈니스 리뷰」 등 활발한 방송 활동을 하면서, 술이 단순히 기호품이 아닌 인류의 역사와 문화, 사회를 이해하는 "창"이라는 관점에서

대중에게 술에 대한 이야기를 쉽고 흥미롭게 전달하고 있다.

이번 강연에서 명옥 교수는 프랑스 와인보다 김제의 술이 훌륭한 이유에 대해 질문을 던지며 술을 통한 한국사의 새로운 면모를 보여주고, 곡창지대인 김제 지역에서 빛진 술의 가치와 우수성을 공유할 예정이다.

한편 지평선아카데미 강연은 누구나 참석 가능하며, 현장 참여가 어려운 시민을 위해 경로당 IPTV를 통해 강연 영상이 실시간 송출되고, 강연 후에는 감사 동의 하에 김제시 사이버학습센터(https://cyber.gimje.go.kr)에 영상을 업로드해 제공한다.

/김제=곽노태 기자

'춘향의 멋, 세계를 매혹시키다'

남원시, '제96회 춘향제' 포스터 확정·공개

남원시(시장 최경식)가 오는 4월 개최될 대한민국 대표 축제 '제96회 춘향제'의 공식 포스터를 확정·공개하며 본격적인 축제 알리기에 나섰다.

이번에 공개된 포스터는 '춘향의 멋, 세계를 매혹시키다'라는 슬로건 아래, 전통적인 미와 현대적인 일러스트를 결합하여 내국인뿐만 아니라 외국인 관광객들의 시선까지 사로잡는다는 전략이며, 광한투원의 낮과 밤을 상징적으로 표현했다.

메인 포스터는 밤하늘의 별빛과 자개처럼 빛나는 광한투원의 야경을 통해 춘향제의 환상적인 분위기를 강조하고, 서브 포스터는 따스한 봄별이 내리쬐는 광한투원의 낮 풍경을 담아냈다.

올해로 96회를 맞이하는 춘향제는 대한민국 최고(最古)의 역사를 자랑하는 축제로, 이번 회차에서는 전통적인 제례와 공연뿐만 아니라 MZ세대와 외국인 관광객까지 사로잡을 수 있는 다채로운 글로벌 콘텐츠를 선보일 예정이며, 이번에 확정된 포스터를 관내 주요 기관 및 전국 지자체에 배부하고, SNS를 활용한 온라인 이벤트 등은 온·오프라인을 넘나드는 전방위적 홍보 활동을 전개할 계획이다.

남원시 관계자는 "이번 포스터는 춘향제가 가진 고유한 정체성을 유지하면서도 전



'제96회 춘향제' 공식 포스터

세계인이 공감할 수 있는 현대적 감각을 담아내는 데 주력했다"며, "포스터 속의 대비되는 두 모습처럼 올해 춘향제는 낮에는 풍성한 체험과 공연을, 밤에는 환상적인 야경과 빛의 향연을 즐길 수 있는 다채로운 축제가 될 것"이라고 전했다.

/남원=김기두 기자

도내 3개 예술단체, 문체부 지원사업 공모 선정

익산 극단 작은 소리와 동작·장수 예술담은 나라·정읍 전북발레시어터

전북특별자치도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주관한 '2026년 지역대표 예술단체 지원사업' 공모에서 도내 3개 시군 예술단체가 최종 선정돼 국비 5억2,000만원을 포함한 총사업비 7억4,000만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선정된 단체는 익산의 극단 작은 소리와 동작(연극), 장수의 예술담은 나라(음악), 정읍의 전북발레시어터(무용)로, 각 지역을 대표하는 예술단체들이다.

이번 공모에는 전국 62개 지자체, 102개 예술단체가 참여해 치열한 경쟁을 벌였으며, 전북은 연극·음악·무용 등 장르 전반에서 고른 성과를 거두며 지역 예술단체의 창작 역량을 입증했다.

이 사업은 지역 예술단체를 집중 육성해 안정적인 창작 기반을 마련하고, 도민의 문화 향유 기회를 넓히는 동시에 예술 분야 일자리 창출로 이어지도록 하기 위해 추진되고 있다.

도는 공모 초기부터 시군과 예술단체와의 협력 체계를 구축해 단체별 특성에 맞는 사업계획 수립을 지원하고, 중앙부처를 상대로 전북 문화예술의 강점과 각 단체의 예술적 가치를 지속적으로 설명하며 선정 가능성을 높였다.

이번 선정으로 각 단체는 안정적인 재원을 바탕으로 수준 높은 창작과 공연 제작에 전념할 수 있게 됐다.

이는 도민들에게 더 많은 공연 관람 기회를 제공하고, 지역 예술인의 활동 기반을 강화해 지역경제 활성화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 것으로 기대된다.

신원식 전북특별자치도 문화체육관광국장은 "이번 성과는 지역 예술인들과 도, 시군이 함께 준비해 만든 값진 결과"라며 "전북만의 색깔을 담은 예술단체들이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이만호 기자

전주매일 전자신문 www.jjmaeil.com

전주천을 살립니다

자연과 인간이 어우러진 생태이전 - 전주천

전주의 남동쪽에서 북서쪽으로 흐르는 전주천은 유역면적 31.53㎢, 길이 30km의 지방 1급 하천이다.

전주에서 남동쪽으로 26km 정도 떨어진 임실군 관촌면 솔치에서 발원하여 시의 중심지를 관통하여 흐르는 전주천은 서신동 추천에서 삼천(三川)과 합류하는 만경강 제1지류이다